The background of the image is a warm, golden sunset sky with soft, wispy clouds. Several birds are seen in flight, scattered across the lower half of the frame, adding a sense of movement and nature to the scene.

카메룬, 야운데
입국정보 및 안전여행 길잡이
25년 6/30 기준

[카메룬, 해외안전여행 길잡이 (2025.06.30 업데이트)]

1. 현지연락처

▣ 주 카메룬 한국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House NO. 85, Rosa Park Avenue, Ntougou-Golf, P.O.Box, 13286, Yaounde, Cameroon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37) 222-203-891, (+237) 222-203-756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37) 654-708-995
- E-mail : cameroon@mofa.go.kr

▣ 주재국 신고

(괄호 안은 한국에서 전화할 때 번호입니다)

- 화재신고 : 118 (+237-118)
- 범죄신고 : 117 (+237-117)
- 응급의료 : 119 (+237-119)
-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는 없습니다.

▣ 의료기관 연락처

(괄호 안은 한국에서 전화할 때 번호입니다)

- 야운데(Yaoundé) : 폴리클리닉 뒤 빨레 (Polyclinique du Palais SARL) +237-698-009-899
- 두알라(Douala) : 오빠딸 라킨티니(Hôpital Laquintinie) +237-672-159-381

2. 기본정보

- 위치 : 수도 기준 북위 3도52분, 동경 11도 31분
- 수도 : 야운데 (YAOUNDE)
- 면적 : 475,440 평방킬로미터
- 언어 : 프랑스어(80%), 영어(20%)
- 인종 : 바밀레케-바무족(24.3%), 베티/바사, 음방족(21.6%), 비우-만다라족(14.8%), 아랍초아/하우사/키누리족(11%), 아다마와-우방기족(9.8%) 등
- 종교 : 기독교(70.7%), 이슬람교(24.4%), 전통신앙 등(4.9%)

3. 사건사고

사건·사고 현황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2015년 이후 카메룬 최북부(Extreme Nord)주 일부 마을에서 나이지리아 소재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의 여행객 피랍, 폭탄테러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은 정세불안은 물론, 경제활동까지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16년 처음 발생한 영어권 지역(북서부주, 남서부주)의 소요사태가 2018년 하반기 이후 매우 악화되어 사실상 무장투쟁 성격이 되었으며, 카메룬의 전반적 치안 상태가 최근 들어 매우 악화된 상황입니다.
- 경제난으로 인해 2016년부터 IMF로부터 구제금융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난, 보코하람의 테러 위협, 영어권 사태로 인한 정치·사회 혼란 등으로 인해 카메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은 해외여행 안전정보를 포함하여 카메룬 뉴스를 점검하여 정치·경제 상황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등의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 카메룬 치안상황은 양호하지 못하여 흥기로 무장한 노상강도, 주거침입 강도 사건이 두알라, 야운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동양인은 현금을 많이 지참하고 다닌다는 소문 때문에 노상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낮이라도 혼자서 거리를 다니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낮시간에 외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해야만 합니다. 야간 외출은 매우 위험하여 현지인들조차 삼가고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간중 숙소의 모든 출입문, 창문을 잘 잠그고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최근에는 영어권 사태,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무장 강도(총기 강도 포함) 발생 빈도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강도를 만났을 경우 돈을 얻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므로, 저항하지 말고 즉시 지갑을 내어 주어 신체적 위해를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현금은 휴대하지 말고 만약의 경우 안전을 위해 일정액을 소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카메룬 현지화 50,000 세파프랑 (약100불)은 민간분야 노무직 노동자 대다수의 1개월 보수에 해당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의 유형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 카메룬에서는 교통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역에 걸쳐 도로상태 불량, 난폭운전,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 희박, 교통 안전시설 부재 등 교통 무질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며, 사고시 양호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고,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군중에 의한 폭언·폭언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에서 나오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따라서, 미리 국내에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추천하며 여행 중에 항상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해가 진 이후 시간대에 운전은 가급적 삼가시길 권장합니다.

- 대낮에 시내의 큰 도로에서조차 소총(실탄 장전)으로 무장한 군·경이 차량검문을 하다가 은연중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자와 승객에게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증 또는 신분증(여권),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문제도 지적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1,000~2,000 세파프랑(약 2~4불) 정도를 지불하면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 외출시에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증 등을 미리 잘 준비해야 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경찰에게 잡힐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 * 검문요구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할 경우 차량타이어 등을 겨냥하여 실제로 발포한다고 하므로 검문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응하여야 합니다.
- * 대도시 시내가 아닌, 교외나 지방의 한적한 도로의 경우 군경 제복으로 위장한 강도가 검문을 요구하여 정차시킨 다음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므로, 시내 이외 지역에서의 자가 운전·여행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 우기에는 열대성 소나기가 수시로 내려서 대도시 교외 및 지방의 비포장도로는 차량 운행이 매우 위험하고, 낙뢰의 위험도 있습니다.
- 건기(특히 12월-3월)에는 카메룬 북방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카메룬 전역으로 모래바람(황사)이 불어와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곤 합니다.
- 공관소재지 카메룬 수도 야운데의 300Km 서쪽방면에 위치한 해발 4,030m의 카메룬산은 활화산으로, 지난 1999년 4월 폭발하여 대규모 용암 분출과 함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 수도 야운데 및 최대경제도시 두알라 시내에서도 주야간을 막론하고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이 안내인 없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 아프리카 여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는 과거의 평과 달리 2015년 이후 보코하람 사태, 영어권 소요사태, 경제난 가중 등으로 치안이 점차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재래시장 등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단독으로 방문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야운데, 두알라 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야운데-두알라간 연결 도로는 왕복 2차선이지만 포장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치안상태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굴곡이 심하고 도로가 심각하게 파인 부분도 많아 정면충돌 등 교통사고가 빈발하므로 야간 운행은 삼가야 합니다.
- 카메룬 서부 나이지리아 접경 지역은 영어권 소요사태, 보코하람 출몰 등으로 인해 여행경보 3단계 (적색경보, 출국권고)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급적 방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거의 포장되지 않은 도로 사정에다가 무장강도가 자주 출현하는데, 특히 2008년 8월 나이지리아에서 카메룬으로 반환된 바카시(Bakassi) 반도 지역은 나이지리아계 민간 무장세력에 의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여전히 노출된 지역입니다.
- 카메룬 북-동부에 위치한 차드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접경지역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룬 북방으로 향하는 Garoua-Boulai, Meinganga 경유 동쪽 도로 및 Bamenda-Banyo축을 연결하는 서쪽 도로 모두 자동차 탈취,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질병 현황

[기타 질병 현황]

-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 백신접종에 의한 사전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카메룬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말라리아는 발병시 약 복용 등 즉각적인 처치가 없을 경우 수일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도 1-3개월 가량은 발병 위험이 계속되므로 카메룬 여행 후 감기몸살 증세가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 말라리아 발병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 만일의 경우에 대비, 귀국시에도 사용하던 말라리아 치료약을 갖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카메룬의 HIV 보균자율(AIDS 감염율)은 공식통계상 인구의 5% 가량이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적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은 물론, 수혈이나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 위험도 있으므로 카메룬 여행중에는 아프지 않도록(병원에 가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콜레라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티푸스, 간염, 황열등의 각종 전염병, 풍토병 등이 발생하고 있고 광견병, 파상풍 등에도 항상 유의하셔야 하는바, 여행 및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여 항상 질병의 감염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방접종]

- 카메룬 여행 수개월 전부터 반드시 의사를 만나 접종기간 프로그램에 따라 **황열병, 장티푸스, 뇌수막염, 파상풍, 간염 등의 예방 접종을 미리 받아야 하며, 또한 말라리아 약 처방을 꼭 받아와야 합니다.** 말라리아 약의 경우에는 현지에서도 구입가능하나 카메룬 입국 1주일 전부터 복용하는 것이 원칙인만큼 국내 구입을 권장합니다.
- 카메룬에서는 야운데, 두알라 등 대도시에서도 의료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병원 방문시에는 주사기와 거즈를 스스로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이들을 카메룬 여행 전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말라리아 약을 비롯하여,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진통제, 소화제 등 비상약도 미리 준비해와야 합니다.

5. 출입국 관련

[비자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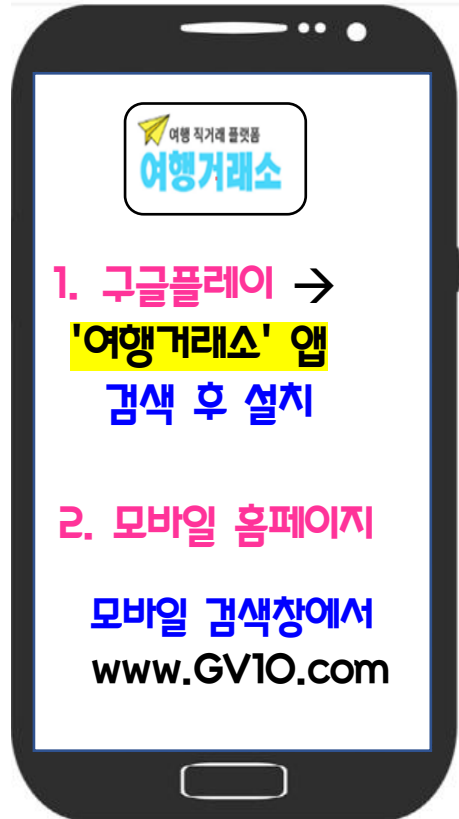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민이 카메룬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비자 (전자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사이트** : www.evisacam.com
 - ①포털에서 계정 생성 후 온라인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②비자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하고 나면 ③관할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심사 및 승인을 거쳐 QR코드가 발급됩니다. 이를 인쇄 또는 휴대폰에 저장하여 입국한 다음 입국 시 비자스티커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심사]

- 출입국시 입국신고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영어로 작성 가능)
- **입국 심사시 황열병 (Yellow Fever)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므로, 노란색 황열병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 마약류, 모조품, 무기류, 춘화 등 외설적 물품, 기타 위험물품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최근 경제사정 악화등으로 인해 정부 내 부패가 만연함에 따라 과거에는 비교적 간단했던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소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하물 집중 단속 기간을 불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잦은 수하물 분실로 인해 공항 출국장에서는 모든 수하물의 짐 태그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짐 태그를 소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휴대폰통관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세관원들이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통관절차는 세관원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 카메룬 한국 대사관 (250630)

갤럭시 폰에서



모바일 검색창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www.GV10.com

-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
-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
-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
- 현지 생생정보
-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
-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

아이폰에서

